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6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11일(음력 1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통도사 자장매 '꽃망울'…성큼 다가온 봄 입춘이 지나며 남도에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 일명 '자장매'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자장매'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법명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매화는 '청빈'을 상징한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는 조선 중기 문신 신흠의 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기품있는 삶을 추구하는 매화의 이미지는 자장 율사가 강조한 지계 정신과도 맞닿는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통도사

불교 '신뢰도 최고' 영향력은 '과제'
국민 치유 위한 '선명상' 대안 주목

조계종연구소, '한국불교 인식조사' 발표

만19세 이상 2034명 조사
국민 54% 불교 신뢰 '1위'
영향력은 개신교 절반 수준
기대 · 현실 간극…고민 필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불교'를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은 높은 신뢰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불교가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로 '위안과 치유'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회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불교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25년 9월 10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4명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불교를 선택한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어섰다.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묻는 항목에서 불교는 29%의 선택을 받으며 개신교 응답률(50.6%)의 절반에 그쳤다.

불교가 도덕성과 청정성, 수행 전통 등에 대해서는 '착하고 무해한 종교'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면에 계속

임은호 기자

레시피부터 OTT까지…'사찰음식'이 뜬다

SNS에 선재 스님 레시피 유행
웨이브, '공양간의 셰프들' 론칭
KBS, 정관 스님 조명 다큐 제작
사업단은 뉴욕서 사찰음식 홍보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 개원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착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햄 없이도 이런 맛이? 선재 스님 두부김밥.' '안성재 님도 감탄한 선재 스님표 국수!'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섬네일 제목들이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는 숏폼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살생·절제·생명존중 등의 철학을 담고 있는 사찰음식이 젊은 층에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한 끼'로 해석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처럼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자 OTT플랫폼과 주요 방송사에서는 사찰음식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웨이브(Wavve)는 신규 프로그램 '공양간의 셰프들'을 통해 사찰음식 명장 스님 6인의 공양(供養) 과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선재·정관·계호·적문·대안·우관 스님이 공양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따라가며 음식에 담긴 철학과 수행의 의미를 조명하는 푸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공양간의 셰프들'은 2월 13일 전편 공개된다.

KBS는 설 연휴를 맞아 '철학자의 요리'를 방영한다. 약 3년간 정관 스님이 만든 사찰음식의 정수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요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철학이자 수행이 되는지, 그 깊고 순수한 과정을 따라간다. 2부작 프로그램으로 2월 16, 17일 방영된다.

뉴욕에서는 한국불교 사찰음식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뉴욕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현지에서 사찰음식 강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정관 스님이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인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의 조리 원리와 그 속에 담긴 불교 철학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기반을 놓는 작업도 이뤄진다. 문화사업단은 오는 7~8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음식학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찰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추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사찰음식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략 연구를 진행하며 초석을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소인 '동국대 사찰음식치유의학연구소'도 최근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윤정 교수(동국대일산불교병원 소화기내과)가 초대 연구소장을 맡아 향후 사찰음식을 의과학·영양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윤정 연구소장은 "현대인들은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다.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올바른 식문화가 사찰음식"이라며 "사찰음식이 만성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나아가 사찰음식을 활용한 예방 지침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상품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국내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사찰식 왕교자'를 한정 출시했다.

도반HC는 "사찰음식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건강한 식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음종·본지, 조세이 유해 수습 '맞손'

2월 2일 상호 업무협약 체결
연중 조세이탄광 캠페인 전개
유해 수습 지원기금 모연키로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음종(총무원장 대행 도각 스님)과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손을 맞잡았다.

관음종과 현대불교신문은 2월 2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및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희생자 유해 수습 조사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대행 도각 스님을 대신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이, 한명우 대표이사를 대신해 여수령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현재 일본 현지에서 진행 중이 유해 수습 조사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은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 기획기사, 조사 상황 관련 취재기사 등과 SNS 홍보를 통해 여론을 이끌 계획이다. 관음종은 종단 산하 사찰 및 신도를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부장 임 은 호
편집국 취재부 차장 김 내 영
2026년 2월 1일부

불기2570(2026)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전국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안내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전국의 종단 인가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대학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12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길상사불교대학 02-3672-5945
달마사불교대학 02-813-7425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도선사불교대학 02-993-3161
법련불교대학 02-733-5322
봉은불교대학 02-3218-4823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영화사불교대학 02-444-4321
우담바라불교대학 02-3411-8104
조계사불교대학 02-768-858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경기
관음사 수자타불교대학 031-533-0741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031-252-1080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봉녕사 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9-1950
불국산연화불교대학 031-840-0388
소림사불교대학 032-612-5900
용주사불교대학 031-226-3488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18
회암사불교대학 031-866-0355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42-9910
영응사 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인천명상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125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법웅사불교대학 033-742-270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월정사불교대학 033-339-6800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대전, 세종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영평사불교대학 044-857-185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개심사불교대학 041-688-2256
내포불교대학 041-662-7717
마곡사불교대학 041-841-6221
문수사 행복불교대학 041-663-3925
서광불교대학 041-664-2001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00
신원사불교대학 041-852-4230
영랑사불교대학 041-353-8053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4-3616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청수사 보현불교대학 043-218-9995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1-6640
대구불광불교대학 053-656-6034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용연사불교대학 053-616-8846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부산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마에뜨리아불교대학 051-271-2774
반야불교대학 051-701-5655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복천사 아난다불교대학 051-417-5551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051-851-3355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52-5111
관룡사불교대학 055-521-1747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금강사불교대학 055-636-8634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동림불교대학 055-325-4008
등구사불교대학 055-963-5933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선학사 해인불교대학 055-762-0108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쌍계사 진감불교대학 055-883-1901
안국사불교대학 055-255-1080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율하선원불교대학 055-321-0772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4-8380
해인사불교대학 055-934-3006
해인사함양불교대학 010-4541-1142
행복한불교대학 0507-1342-6510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문경불교대학 010-7942-6134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상주불교대학 054-534-6331
예천불교대학 010-2515-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9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50

광주
광주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7
선덕사 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전남
강진불교대학 010-8837-8557
다보사불교대학 061-334-4201
목포불교대학 061-244-1489
백양사불교대학 061-392-7502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불회사불교대학 061-337-3440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용흥사불교대학 061-382-0571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화엄사 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전북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선운사불교대학 063-561-1422
수현불교대학 063-224-4441
이리불교대학 063-854-1578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동법사불교대학 064-783-2532
법화사불교상담대학 064-738-5225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제주관음사불교대학 064-722-6830

해외
LA불교대학 teaartedu@gmail.com
달라스보현불교대학 soonpark008@gmail.com

온라인
국제포교불교대학 02-722-2206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070-8680-9288

※ 각 불교대학의 학사 기간, 교과과정, 입학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주소는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포교→신도등록 및 교육→<불교대학 주소록>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